

# “졸업 후 공연 기회 부족한 예술가들 무대 만들어 주고 싶어”

### 피아니스트 최혜지 씨 기획 'Remember Artist' 공연 2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학창 시절... '음대생'을 마주친 적 있는가?  
긴 생머리를 나풀거리며 연습실에서 피아노의 흑건, 백건을 고상하게 누르던 그들을. 못 남학생들에게 음대생은 예술세계에 심취해 있는 '환상 속 대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후수 위의 백조처럼 음악계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신진 예술가들에게 높게 다가오는 진입장벽 등의 이유로, 음대 졸업생 중 다수는 예술 활동을 중단하곤 한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유학 생활의 부담감, 경제력, 열악한 지역 현실 등이 대표적이다.



플루티스트 문윤정



피아니스트 최혜지 씨는 음대 졸업 후 공연기회가 부족한 예술가들을 위해 'Remember Artist'를 기획했다.



피아니스트 김경은



피아니스트 백계준



소프라노 조인나



테너 서재원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넘어 새내기 예술가들이 비상할 수 있도록 예술대 졸업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음악회가 열린다.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펼쳐지는 'Remember Artist'가 바로 그것.

“잊혀진 예술가들을 관객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했어요. 공연을 통해 아티스트들이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사를 총괄하는 최혜지(여·26) 씨는 전남대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뒤,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16일 오전 전남대 용지에서 만난 최 씨는 수수했지만 예술에 대해서만큼은 강단 있는 태도를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청년문화허브가 주관하는 '호랭이 왕국' 프로그램에서 기획비 일부 지원받아 열린다. 여기에 최 씨의 사비까지 더해 포스터 디자인부터 홍보까지 진행되고 있다.

“음대 선배들 사이에서 졸업 후 연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부터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무대에 서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 발품을 팔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알기에, 사비를 들여서라도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죠.”

우리 지역에는 광주예술의전당,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유수의 공연 시설이 있다. 신진 예술가로서 이 같은 공간에서 서는 것이 어렵게 다가오는지 묻자 최

씨는 “커리어나 공연 이력이 많지 않은 '신인'들에게는 마냥 쉽지 않다”며 “특정 기관은 대관 신청 자격으로 예술활동경력증명을 요청하는데, 이 경우 청소년 연주회, 교내 연주회 등은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 음대를 졸업한 신진 예술가가 공연장을 위해 독주회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지도교수 제자 음악회' 등을 통해 제자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곤 한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금을 통해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애최초 지원, 청년예술인 지원금으로 인당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쟁은 치열한 편.

최 씨는 “사회가 경력을 선호하는 현상처럼, 음악예술계도 '경력 있는 신인'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 신인’들이 예술 경험이 부족한 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문화기관들이 더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9월 중 사전공모를 통해 성악, 관현악, 피아노 분야 예술가들을 선발했다. 총 20여 명이 지원했는데 최 씨가 그중 12명의 예술가를 선정했다. 최 씨 본인은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

성악 분공역은 소프라노 임대희가 ‘참 맑은 물살’, ‘죽음이며, 오나라’ 등으로 막을 연다. 이어 소프라노 오세미가 ‘목가’, ‘연(緣)’을 선보일 예정이며 테너 서재원이 ‘벚노래’, 오페라 돈 조반니 중 ‘그녀 마음속의 평안’을 부른다. ‘마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는 소프라노 조인나가 들려준다.

관현악 레퍼토리는 울려 퍼진다. 이수민과 문윤정의 플루트 연주, 김예분의 바이올린 선율을 감상할 수 있다. 대미는 피아노 연주자들이 장식한다. 정은주, 김경은 등 피아니스트들이 올라 라흐마니노프, 드뷔시, 쇼팽 등의 곡을 연주한다. 이들은 음대 출신 졸업생들.

무엇이든 첫 시작은 어렵다. 이끌어 주는 사람 없이 목표를 ‘성취’하기란 쉽지 않은 게 문화계 현실이다. 이번 행사로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동시대 신진예술가들이 예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글·사진=최류민 기자 rubi@



현지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장면. (ACC 제공)

##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 공예품' 만들어요 ACC, 아시아 공예 레지던시 연계... 11월4일 '공예 워크숍'

오세린 공예 작가와 이혜미 한복 디자이너는 얼마 전 인도네시아 현지로 떠나 공예 기술을 배웠다. 두 작가는 인도네시아 전통 수공예 직물 염색법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바틱을 기반으로 한 공예를 익혔다.

이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2023 아시아 공예 레지던시' 연계 프로그램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 파견됐다.

오세린 공예 작가와 이혜미 한복 디자이너는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제작하는 자바 전통 장작 고정 워크숍, 바틱 및 천연 염색 등 전통 공예 워크숍, 현지 작가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ACC는 '2023 아시아 공예 레지던시' 연계 프로그램 '공예 워크숍'을 오는 11월 4일 문화정보원B4 특별열람실에서 진행한다.

일명 '나만의 바틱 공예품' 만들기 체험. 참여 신청은 오는 11월 2일까지 ACC 누리집에서 해야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회당 선착순 10명 모집,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먼저 오작가는 바틱 문화와 직접 경험한 인도네시아 자연환경을 소개하며, 욕야카르타에서 수집한 50여 종류의 바틱 천을 활용한 '작은 화산' 오브제 제작 수업을 진행한다.

이 디자이너는 현지 전통 직물을 활용한 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문화와 전통 공예를 소개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교류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진행된 '2023 아시아 공예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ACC와 인도네시아 비영리단체 바바란 세가라 그농 재단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두 작가는 3주 동안 현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바 전통 장작 고정 워크숍, 바틱 및 천연 염색 등 전통 공예 워크숍, 현지 작가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배워온 작가들의 기술과 경험을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아시아 전통 문화유산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지선 소리·도경한 북장단 '심청가'

공연예술계가 관객들의 공연장 진입 문턱을 낮춰가는 추세다. 전통예술 공연계도 해설을 곁들이거나 익숙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광주시립창극단(시립창극단)이 2023년 특별공연으로 마련한 '판소리 감상회'는 이 같은 시도다. 오는 25일 오후 3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심청가'를 상연한다는 계획이다.

윤중강 국악 평론가가 해설을 맡았다. 서울대 국악과, 일본 도쿄예술대 대학원 음악연구과를 졸업한 윤 씨는 지난 1985년 제1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은 심청가 중 '심봉사 곡씨부인 안장한 후 집으로 돌아와 자탄하는 대목'부터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까지를 감상할 수 있다. 이를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이지선(시립창극단 상임단원)의 소리, 도경한(시립창극단 기악부 상임단원)의 북장단에 맞춰 들려준다.



이지선(왼쪽) 소리꾼과 도경한 고수.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광주시립창극단 김규형 예술감독은 “관객들이 공연장에 찾아와 넣어주시는 추임새, 웃음이 판소리 공연의 원동력이 된다”며 “전통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티켓링크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25일 광주공연마루

## 정인서 서구문화원장 “금석문, 미래 콘텐츠로 활용을”

광주에 광개토태왕비 등 복제품 등을 설치하지는 이색적인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교육문화네트워크 동행이 기획한 '기록문화의 역사와 미래를 찾아' 강연에서 제기됐다.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은 벽진서원에서 열린 '금석문, 옛 기억 미래 콘텐츠'라는 특강에서 기록의 금석문을 '옛 기억 미래 콘텐츠'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정 원장은 “우리의 금석문 기록은 당시의 모습을 가장 진솔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라며 “이러한 금석문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옛 기억으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의 콘텐츠로 다시 살아나는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전 동몽교관을 지낸 김창환의 한 후손이 찾아와 '1910년에 세워진 선조의 유해비가 비바람에 깎이고 있어 비자를 세우고 싶는데 땅 주인의 허락을 받는 과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문의를 해주었다”며 “관심을 갖는 후손도 있지만 많은 경우 후손들의 무관심으로 금석문은 물론 사당이나 관련 유적들이 훼손되는 경우

가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원장은 “금석문의 가치를 살릴 때 동시성과 단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금석문의 내용이 문학, 어학, 생활습속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될 수 있는 자료”라며 “특히 역사학적으로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석문으로는 함무라비 법전, 우르남무 점토판 그리고 로제타스톤을 들 수 있다. 모두 대영박물관 등 여러 곳에서 귀중하게 다루고 전시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이 '금석문, 옛 기억 미래 콘텐츠' 주제로 강연을 하는 모습.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b>062) 227-9940</b> <b>062) 227-9970</b>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b>02) 765-9940</b>
순천점	중앙시장 앞	<b>061) 752-9940</b>